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이북, 북시케, 그리고 푸른 한리머들의 북클럽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요일) / 장 소 :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이*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안**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범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책 제목 :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 마틴 린드스트롬</p> <p>즐거리 경제와 소비라는 큰 틀에서 대중들의 소비를 조장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브랜드의 입장에서 다룬다. 그 요소들에는 아이들, 공포, 갈망, 섹스어필, 군중심리, 추억, 스타마케팅, 친환경, 데이터 마이닝 등이 있다.</p> <p>기대 효과 우리를 둘러싼 많은 소비 조장 요소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알아봄으로써 건강한 소비를 하는 방법과 소비 그 자체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소비와 더 가까워진 20대의 시각에서 현재 소비 문제를 되짚어보며 올바른 경제 관념을 잡을 수 있다.</p> <p>토의 주제 1. 책에서 제시된 9가지의 소비 조장 요소 중, 각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그 이유 분석 2. 현재 소비 행태의 분석과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p> <p>감상평 이 책을 읽기 전에 과연 내 지갑을 조종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다. 나는 제품의 기능, 디자인 등과 같이 그 대상의 특성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이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이 지갑을 움직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녹여진 결과였던 것이다. 책의 말미에는 “우리는 마케팅과 광고 세상에서 우연이란 없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나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로부터 세뇌를 당하</p>							

고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브랜드의 의도적인 마케팅 전략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는 소비자들은 책의 제목처럼 어느 순간 지갑을 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으로부터 어떻게, 얼마나 공략되어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를 슬기롭게 활용해 현명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 상술이야 상술” 친구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과자를 사려할 때 내가 종종 하는 말이다. 평소에 나는 기업의 ‘상술’을 잘 피해간다고 생각해왔다. 캐릭터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홍보방식은 눈에 띄기 때문에 쉽사리 구매를 하지 않는 편이다. 최근 ‘오픈런’대란이 벌어진 포켓몬빵이 흥행했을 때도 나는 한 번도 구매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나도 ‘상술’에 휘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카콜라가 대표적이다. 나는 꽤 오랜 시간동안 ‘코카콜라’만 마셨었다. 여타 다른 콜라들도 있지만 내가 코카콜라만 선택한 이유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tv를 가장 많이 봤던 유치원~초등학교 시절 어린이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끼워진 광고들 중 코카콜라 광고가 눈에 띄었다. 짹짹한 햇빛이 내리쬐는 와중 자판기에서 코카콜라를 뽑아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과 북극곰과 산타가 나와 코카콜라는 마시는 모습이었다. 광고 자체가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이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저 콜라는 코카콜라라는 인식이 어린 시절부터 박혀있는 탓일까 매번 나는 코카콜라만 선택해 왔다. 사실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코카콜라를 골랐다. 그동안 코카콜라만 샀었기에 그저 그것을 고를 뿐이었다. 최근에서야 이런 미련은 사라지고 ‘맛’이 더 좋은 펩시콜라를 선택하게 됐다.

책에서는 이를 ‘향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의 기억과 연관된 제품은 설사 다른 제품이 더 좋더라도 이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제품을 사고, 사용함으로써 그 때의 좋았던 기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는 브랜드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며 ‘역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코카콜라 역시 이를 잘 이용한다. 지금도 코카콜라 홈페이지에서는 ‘변하지 않는 맛’을 강조하며 ‘향수’를 강조한다. 맛은 펩시가 더 좋음에도 코카콜라를 선택했던 것이 ‘상술’에 이끌렸다는 것을 여지껏 느끼지 못했다. 무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를 읽고 나서야 그 이유가 ‘상술’이었음을 알게됐다.

지금껏 내가 행해왔던 소비에 대해 생각해봤다. 필요해서 구매한 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거의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대부분이었다. 책에서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 권태, 자기비하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로 쇼핑을 활용한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보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무언가를 사고 싶단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몸이 힘들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면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소비를 하고 싶다

는 마음 하나로 구매를 한 것이다. 구매를 하고 나면, 내게 선물을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막상 택배를 받으니, 허무한 기분이 든 적도 있었다. 이런 소비 행태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죽 힘들면 이런 탈출구를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감정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구매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가장 놀랐던 점은 소비를 조장하는 요인이 꽤 많다는 거였다. 뭔가 살때 알고리즘과 같은 요소들은 자주 생각을 해봤는데 책 소개를 읽고 내가 몰랐던, 하지만 소비를 하면서 끌려왔던 요소들이 이렇게 구체적이라는것에 신기했다. 다음부터 광고를 볼 때 이것저것 생각해서 책으로 얻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독서의 힘을 다시한번 느끼기도 했다.

나는 평소에 조그만데 가격은 터무니 없는 편의점 콜라보 상품들에 혹하는 편이다. 일단 랜덤박스이라는 거 자체가 자극적이기도 하고, 따로 게임이나 덕질 등을 하고 있지 않은 나에겐 소소하게 즐길만한 유희이다. 물론 살 때는 돈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 현실이나 아이돌 앨범을 산다는 등의 소비는 하지 않으니 합리화를 하게 된다. 또 대학에 들어와서 알바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신용카드를 주셔서 가끔은 그것도 사용하니 점점 돈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비해 더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이 시점에서 해당 책을 읽게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알게 되면 적어도 그 부분들에 속아 충동구매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토의 내용

1. 책에서 제시된 9가지의 소비 조장 요소 중, 각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와 그 이유 분석

나는 '공포'라는 요소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움직이는 데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가 팽배하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 당시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등 방역 용품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됐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공포를 야기하는 존재들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소비를 행한다는 말이다.

사실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이나 재해는 매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에 공포라는 요소가 우리의 소비 행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포가 소비를 지속적으로 조장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포가 주는 영향의 크기와 속도는 여타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우위라고 본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공포로부터 지갑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바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를 실천하는 이는 몇명이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공포가 닥쳐서야 이를 상쇄시키는 소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어렵게, 또 더욱 비싸게 소비를 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브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브랜드 마케팅, 소위 말해 상술을 전력을 다해 펼치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책을 읽고 항상 브랜드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

책에서 제시된 9가지 소비 조장 요소 중, 스타가 쓰는 제품을 보고 따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텔레비전을 틀면 스타가 광고하는 제품들이 넘치고, SNS를 통해서도 스타가 직접 쓰거나 광고하는 제품들이 뜬다.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다 보면, ‘어? 나도 한번?’ 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 같은 상술에 넘어가 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실제로 사용한다는 광고에 넘어가 구매했다.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그 연예인의 사진까지 준다니, 구매를 안 할 수 없다.

스타의 출·퇴근길 또는 공항 패션도 스타를 따라 소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미디어에 노출이 자주 되다 보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징을 이용해 영향력 있는 스타들에게 협찬이 들어온다. 그것을 본 일반인들은 스타가 입은 착장을 그대로 따라서 구매하거나, 마음에 드는 제품만 골라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손민수’ 한다고 얘기한다.

특히 아이돌 가수의 팬들이 ‘손민수’를 많이 한다. 특정 아이돌 가수가 사용한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타와 같은 제품을 쓴다는 자기만족감과 ‘이 제품을 산다면, 나도 스타처럼 되겠지?’라는 심리로 구매를 한다. 실제로 최근 한 아이돌이 고양이 비니를 쓰고 나왔는데, 이를 보고 따라 산 사람들 덕분에 비니가 완판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타가 쓰는 제품을 보고 따라서 소비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쓸데없는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다. 스타가 입고, 스타가 사용하고, 스타가 광고한다는 이유만으로 호기심에 무의미한 지출을 한다. 상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라 생각하고 넘긴다. 하지만 제품 광고를 일반인이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소비의 형태는 계속될 거라고 본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타가 광고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거다. 스타가 쓰는 제품을 따라 사고 싶다면, 꼭 필요한 물건인지 여러 번 생각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제시한 9가지 소비 욕구 중 군중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남들 하는 대로’ 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패션업계에서 ‘클론템’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클론템’은 한 가지 옷이 유행해 길거리에 같은 옷이 많이 보이는 것을 스타워즈의 ‘클론’에 빗대 이르는 말이다. ‘노스페이스 패딩’과 ‘롱패딩’ 등이 이런 현상의 대표적 아이템이다. 책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소외감’을 꼽는다.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SNS의 등장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

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 같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결과로 나타난다.

'아이폰'역시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뉴스 헤드라인에는 <“한국 아이들, 비싸도 아이폰만 찾는다” 삼성fon 휴대에 '충격'> <아이폰이 좋다는 MZ세대>와 같이 젊은 층에서 아이폰의 소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다른 이들의 '갤럭시'라는 시선을 의식하며 기피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해결 가능할지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시욕, 소외감 같은 요소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과거 석기시대 때도 각자 부족이 더 큰 고인돌을 만들며 과시를 하는 풍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자기 부족의 능력을 고인돌의 크기로 대신하며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는 고인돌은 현재의 과시욕과 그리 다를 바 없다. 단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고 자본주의와 결합되며 이 같은 모습이 소비로 들어난 것이다. 때문에 '머스트 해브 아이템'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이성이 발전했다지만 근본적인 본능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소비'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즐기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한다.

2. 현재 소비 행태의 분석과 문제점 논의

요즘 MZ세대들의 소비 특성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인 소비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예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를 행할 때, 가격이 1순위가 되었다면, 요즘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욕구가 가격이라는 요소보다 우위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의 소비 습관도 돌아보기 시작했다. 백만원을 호가하는 노트북, 핸드폰부터 기본적으로 십만원은 넘는 옷이나 신발가지 등을 살 때마다 부모님과 언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예전의 소비 행태와 최근의 소비 행태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의견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사는 거라고 맞받아치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나의 충동적이고 독단적인 소비는 계속된다.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게 이러한 충동적 소비이지만,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이제는 이러한 소비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찰나였다. 또한 최근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충동적 소비의 빈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고치려는 조금의 노력은 하고 있긴 하다. 원래는 나의 체크카드 통장에 돈을 한꺼번에 모아두고 하나의 계좌만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체크카드와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한 금액만을 넣어두고 사용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꽤 효과가 있었다. 돈이 빠져 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확연하게 작아졌기에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상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치도 넣어둔

돈이 다 떨어지면 바로 다시 돈을 채워 넣기에 점차 처음의 의도를 잃어가고 있는 하다.

나는 현재 소비 행태의 문제점은 유행에 따른 과소비라고 생각한다. 가성비 좋고, 더 질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더 비싼 특정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사게 되는 것이다. 현재만 봐도 그렇다. 아이폰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카메라 기능만 봐도 타 사 휴대폰은 더 선명하고 배율 확대가 잘 된다. 뿐만 아니라 통화녹음 등 다른 부가적인 기능까지, 아이폰은 휴대폰의 역할에 치중한 기기가 아닌 디자인, 유행 등에 치중한 기기이다. 하지만 더 기능 좋고 싼 휴대폰이 있어도 우리는 다소 불편한 아이폰을 사게 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게 만드는, 소비자의 니즈 파악이 잘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작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꼽지만, 나도 정작 별반 다를 게 없다. 원래 다른 휴대폰을 쓰던 나도 부모님을 졸라 아이폰을 샀었고, 룬패딩이 한창 유행할 시기에는 더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브랜드의 잠바를 샀었다. 지금 와서는 후회되는 점이다. 어차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것을 알았고, 절대 고정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행이라는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이 먼저 망가져버리기라도 하면 과소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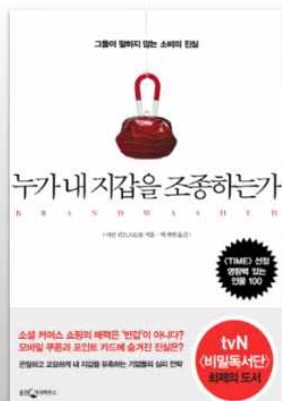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이북, 북시계, 그리고 푸른한리머들의 북클럽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31일(화요일) / 장 소 :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이*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안**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범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p> <p>책 제목 :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 마틴 린드스트롬</p> <p>*토의 후 연장 활동 진행 - 일주일간 가계부 작성해보기. 진행 기간: 10월 31일 ~ 11월 6일 (7일간)</p> <p>활동 선정 이유 우리 팀은 지난주 활동으로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라는 소비 조장 요소 분석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 우리 팀은 신청서를 낼 때부터 독서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토론을 바탕으로 생각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이나 사회에 의미있는 실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팀원들 모두 자신들의 소비 양상을 분석하고 건강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 가계부를 작성하기를 연장 활동으로 선정했다.</p> <p>기대효과 자신의 소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책에서 나온 양상과 비교해보며 내 소비는 주로 어떤 유형을 위주로 따라가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소비를 조심하는 자세를 기르고 그에 따른 건강한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게 돕는다.</p> <p>후기 일주일간의 소비를 다룬 건데도 불구하고 평균 소비가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서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내역을 보면 언제 뭐하느라 썼는지 자연스레 합리화가 됐다. 이런 소비를 줄여야 과소비를 멈출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요즘 대학 생활을 타지에서 혼자 하다보니 뭐든 돈이 나간다. 특히 학기중이라 돈을 아</p>							

끼고 모으는게 더 쉽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내 소비의 문제점을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조금의 쓸데없는 소비라도 줄이도록 해야겠다고 느꼈다. 어릴 적
이후로 용돈기입장, 가계부 등을 써본 적 없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
고 작성해보니 정말 남다른 감회가 들었다.

2023 년 10 월 31 일

참가자대표 : 윤주희



2023학년도 2학기 심비우스 북클럽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실천 활동

-가계부 작성을 통한 소비 행태 파악-

이북, 북시케 그리고 푸른한리머들의 북클럽

날짜		내용	금액	사유
1일차	10/31(화)	1. 두샘플레이스 2. 할리월 마라탕 3. 팔공터 4. 무친시(인터넷 소풍)	1. 6,100원 2. 8,600원 3. 4,000원 4. 202,677원	1. 카궁 2. 저녁밥 3. 후식 4. 배팅 구매
2일차	11/1(수)	1. 스텝 PC 한림대집 비상계(과 학순계)	1. 3,000원 2. 10,000원	1. 개인 2. 티켓 구매
3일차	11/2(목)	1. Adobe GS25 한림대학사1점 두샘플레이스 한림대점	1. 18,000원 2. 4,750원 3. 6,500원	1. 원집 프로그램 구독료 2. 점심밥 3. 카궁
4일차	11/3(금)	1. 두샘플레이스 2. 윙윙프 뮤직 3. 코레일 4. 택시	1. 6,100원 2. 8,650원 3. 9,800원 4. 4,900원	1. 카궁 2. 구독료 3. ITX표 구매 4. 춘천역행
5일차	11/4(토)	1. 기소아플리스상암엘비비점 스토랑트서울상암점	1. 13,500원 2. 5,500원	1. 저녁밥 2. 카궁
6일차	11/5(일)	1. 배달의민족(엄기택복이)	1. 21,000원	1. 점심밥
7일차	11/6(월)	1. 코레일 2. 택시 3. GS25 한림대학사1점	1. 9,800원 2. 5,100원 3. 2,100원	1. ITX표 구매 2. 등교 3. 음료수 구매
금액 총합		350,117원		

날짜		내용	금액	사유
1일차	10/31(화)	1. 할리월 마라탕 2. 팔공터	1. 7,500원 2. 3,400원	1. 저녁밥 2. 후식(다른 친구들이 먹어서 의도에 없는 소비를 하게 됨)
2일차	11/1(수)	1. 비상계 티켓 2. 택시계티	1. 10,000원 2. 7,800원	1. 경품에 응모하기 위해 사용 2. 저녁밥
3일차	11/2(목)	1. 파파게티 컵 2. 할리월 마라탕	1. 1,800원 2. 8,800원	1. 밥 2. 저녁밥
4일차	11/3(금)	1. 짜장면	1. 5,500원	1. 점심밥
5일차	11/4(토)	1. 휘발유	1. 40,000원	1. 자동차 주유
6일차	11/5(일)	1. 레스비 커피	1. 2,200원	1. 커피가 필요함
7일차	11/6(월)	1. 우영아식 닭우동 2. pc방 시간 출전	1. 6,000원 2. 3,000원	1. 점심밥 2. 음료비
금액 총합		95,800원		

날짜	내용	금액	사유
1일자	10/31(화)	1. 달밤	1. 친한 사람과 술 약속이 있었음
2일자	11/1(수)	1. 돈 받음 2. 안림골 3. 유드 동아리 회비	1. 대신 내준 술값을 받음 2. 동아리 회식이 있었음 3. 동아리 도장 등록비를 내야 돈을 받을 수 있음
3일자	11/2(목)		
4일자	11/3(금)	1. 배달음식	1. 밥을 먹어야 했음
5일자	11/4(토)	1. 교통비	1. 본가에 가야 함
6일자	11/5(일)	1. 교통비 2. 담배	1. 춘천에 다시 와야 함 2. 알바를 하며 담배를 자주 피
7일자	11/6(월)		
금액 총합	총 125,000원의 지출이 있었음.		

참
가
자

대표 : 윤주희

날짜	내용	금액	사유
1일자	10/31(화)	1. 판공비	1. 밥 먹었으니 후식 먹어야함
2일자	11/1(수)	1. 비상재 타켓 2. 패지캐터 3. 피시방	1. 도박 2. 저녁밥 3. 유용
3일자	11/2(목)	1. 비상재 타켓 2. 경신	1. 도박 2. 배가 고파서...
4일자	11/3(금)	1. 무진사 2. 편의점	1. 니트 장갑 구매 2. 담배 구매
5일자	11/4(토)	1. 택시 2. 하이디라오 3. 카페	1. 춘천역 2. 점심으로 튀김 먹음 3. 점심 먹고 후식
6일자	11/5(일)	1. 카페	1. 목이 말라서 음료수 섭취
7일자	11/6(월)	1. 비바리바다	1. 술 한잔 마셨습니다.
금액 총합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이북, 북시계, 그리고 푸른한리머들의 북클럽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요일) / 장 소 :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이*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안**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범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p> <p>책 제목 : 꼬끼리는 생각하지 마 - 조지 레이코프</p> <p>줄거리 이 책은 “왜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라는 진보의 해묵은 의문에 답한다. 또 프레임에 대한 각종 오해와 궁금증, 민주당의 패배 등을 인지언어학을 위주로 다루는 정치 관련 도서다.</p> <p>기대효과 20대, 유권자의 나이이자 미래 사회의 방향을 이끌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청년층에 접어들었다. 정치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만을 생각했으나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을 우리 스스로라도 바꿔보기 위해서 책을 선정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고자 한다.</p> <p>느낀점 예전에 유튜브에서 아이 훈육법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화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며 스키선수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스키선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피하며 하강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나무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 피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 행동을 생각하게 된다”며 긍정적인 화법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p>							

이번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는 이런 심리적 효과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풀어갔다. 여기서 코끼리는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을 의미한다. 책의 저자 조지 레이코프는 미국의 진보 정당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로 공화당의 프레임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그는 '서민층'이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 없는 부자당을 찍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 않으며 '정체성'과 '가치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는 진보 진영이 정책과 프로그램만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유권자가 원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결여돼 있고 그것이 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의 경우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신념과 관련해 프레임을 지어 표를 얻어온다는 것이다. 가령 '안전은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국방비 인상' '총기규제 완화'와 같은 식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프레임은 내가 공부하는 언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론에는 '어젠다 세팅'이라는 이론이 존재한다.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보여주면 수용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어젠다 세팅 이론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최근 언론을 도배한 '홍범도 장군' 이슈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역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출산, 금리인상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모두 덮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 이념갈등으로 대표되는 해당 논란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미디어의 프레임에 휩쓸린 것은 아닐까?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관통하는 책'이라고 이 책의 후기를 한 줄로 적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에서 정치 분야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 것일까? 그닥 들여다 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주관은 사라진 채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똑같이 지지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다수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이 사태를 정치가 양산하는 '프레임'의 무서움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라고 본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정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다. "굳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데도 잘 살아가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당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프레임을 전달한다. 아니 주입을 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점도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몫까지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만을 취한다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조차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은 정치적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수동적인 프레임에 갇혀 살아왔다면 이 책을 읽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한다.

매 선거 때마다 드는 의문이었다. '왜 진보정당은 보수정당에게 늘 패배할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시절에는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또 대통령과 언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고립하는 것을 자처하는 타입이다. 여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반면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로 변화를 원한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태 보수를 고집했던 사람들에게진 진보적인 행위가 달갑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이미 우리는 보수 정권의 세뇌 때문에 부정적 프레임에 많이 노출된 상태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해도 이미 씩씩진 프레임 때문에 뼈격 거리게 된다. 만약 변화했다 해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책에서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은 부정할 때도 활성화 된다”고 말한다. 또, 진실을 부정할수록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며,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공적 담론이 변화해야 한다고 한다. 보편적으로 특정 프레임을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프레임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재구성 할 때, 정직성과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고도 덧붙인다. 속임수나 여론조작 같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아예 배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 또한 의견이 다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보수주의 사람들에게 대응할 만한 프레임을 재구성 하여 이를 가치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것만큼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 건 없다. 이제는 보수주의를 사로잡을 '공감'을 펼쳐야할 때다.

문제점 제시

블루칼라 직종이 미천하다는 고정관념.

우리는 흔히 직종을 사무실에서 화이트 셔츠를 입고 일하는 '화이트칼라'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블루칼라'로 나눈다. 화이트 셔츠의 사무직과 노동자들이 흔히 입는 청색 작업복이라는 단순히 옷의 색으로 구분되었지만, 암묵적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은 엘리트, 블루칼라 직종은 그 아래의 하층민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 또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의 소득 차이로 인해 삶의 수준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

차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웬만한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곤 한다. 이 수치는 올해 초 진행된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에 2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원하여 500대 1의 경쟁률을 넘는 결과를 형성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스펙이 화이트칼라 직종보다 떨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관련 자격증이 5개는 갖춰져야 기본적인 스펙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이라서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직업으로 급을 나눈다는 것은 모두 옛말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직업이 존중 받는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

결혼이 이성애적 이라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문화적 고정관념의 사례가 더 있을까?

인종역시 문화적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한현민이라는 우리나라의 모델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국적인 외모와 피부색을 가졌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이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의식주 문화를 모두 우리와 공유하고 있지만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다. 최근 국민의 힘의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씨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했다. 이후로도 그는 한국에서 의사로 생활했고, 2012년에는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이다. 미국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길지만 정치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외국인이 뭘 아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역시 인종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이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

2023 년 11월 7일

참가자대표 : 윤주희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이북, 북시케, 그리고 푸른한리머들의 북클럽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 년 11월 14일(화요일) / 장 소 :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이*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안**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범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p>책 제목 : 꼬끼리는 생각하지 마 - 조지 레이코프</p> <p>추가 활동 - 각자 생각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얘기 나눠보기</p> <p>인터넷 실명제, 찬성해야 하는가?</p> <p>인터넷 실명제가 허용된다면 인터넷 악플의 절대적인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수위는 더욱 심해질 것 같다.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래 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들이 소위 ‘키보드 베틀’로 불리는 인터넷 말싸움을 한다면 각자 인신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예 훼손 사례역시 높아질 것이다.</p> <p>나는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한다면, 본인이 아는 사람을 어디선가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악플이 반강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현대 사회는 그만큼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이를 찾아내기 힘든 경우 피해자는 억울하게 가해자에게 처벌도 내리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허용한다면 깨끗한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p> <p>공기업의 채용 인원 중 30% 이상을 해당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는 공기업 지방할당제도는 합리적인가?</p> <p>본래는 비교적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였지만 현재는 젊은 세대들의 수도권 지향 현상으로 인해</p>							

이러한 의미가 퇴색되거나 지원 제도가 편향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며 역차별 문제 등이 야기 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 또한 강원도 소재의 공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해당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수도권을 지향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충원되지 못한 인원들은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은 더 밀려나게 된다. 더 큰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옳은 행위인가?

최근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기존에는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뭘 하나 싶지만, 중대범죄 피의자인데 인격권을 보호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공개는 되고 있지만 성폭력과 특정 강력범죄 대상으로만 공개하고 있고, 그마저도 현재 모습과 달라 식별하기 어렵다. 머그샷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보복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가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공개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사회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저 두려움에만 떨며 살아야 한다.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므로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23 년 11 월 14 일

참가자대표 : 윤주희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이북, 북시계, 그리고 푸른한리머들의 북클럽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요일) / 장 소 :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이*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안**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범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책 제목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 마이클 셸러버거</p> <p>줄거리 이“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 “아마존이 곧 불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린피스가 고래를 구했다” 같은 익숙한 통념과 정반대되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을 알려주며, 공장을 떠나면 숲이 위험해진다는 것과 자연을 위해 인공이 필요하다는 등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에 반대되는 역설을 소개한다. 자연과 인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소개해주는 책이다.</p> <p>기대효과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친환경·유기농의 이름으로 다양한 상술이 판치는 시대에서 진정한 환경의 실태를 이해하고 인지하려 한다. 환경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직접 직면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환경에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해당 도서를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왜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이유를 인지하고 그 자세를 기른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환경의 정보를 바로잡으며 환경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다.</p> <p>느낀점 무분별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자 대체되는 물품들이 나오는 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새로운 쓰레기를 낳고 있다’였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대체하고자 만든 종이 빨대는 과연 옳은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p>							

종이 빨대를 처음 실행한 곳이 스타벅스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친환경 브랜드를 노리면서 매 시즌마다 새로운 MD를 한가득 낸다. 그러면서 빨대는 종이 빨대를 준다. 모순적이게 느껴지지 않는가?

종이 빨대가 금방 녹록해진다는 단점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 한다. 기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거다. 다른 대안으로 생분해 성분의 빨대를 사용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둔 종이 빨대는 쓰레기가 된다. 쓸데없이 자원만 낭비한 꼴이다. 심지어 생분해 플라스틱은 분해 과정에서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말 '굳이'라는 거다.

책에서는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9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0.03퍼센트만 플라스틱 빨대라고 말하며, 너무 작은 부분에 심취해있지 말라고 한다. 바다거북의 코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 보다 보리고래의 내장에 갇힌 플라스틱 컵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거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셸런버거는 플라스틱을 진보의 산물이자 동물들을 지켜낸 도구로 바라보고, '자연을 지키려면 인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덧붙인다.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이로움을 주기도 한다. 바다거북의 등껍질, 코끼리의 상아 모두 플라스틱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면 플라스틱에 대해 무작정 비난을 해도 되나 싶어진다.

물론 환경에 해로운 물질은 맞다. 쓰더라도 여러 번 재사용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되도록이면 사용을 줄이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도 과연 옳은 일인가 싶다. 먹어서 없앨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면 굳이 만들어야 하나?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재사용 하는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엄한 부모님의 밑에서 평소 분리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태도가 몸에 베어 있어 환경을 보호한다는 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소심한 반발이었을까 최근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혼자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에 대해 귀찮음을 느끼며 분리수거를 예전보다 소홀히 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나의 행동은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다. 환경 단체가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오히려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책은 환경 단체들이나 정부의 활동처럼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라보지만, 나는 충분히 나와 같이 개개인의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환경 보호를 강요하는 것은 괜한 반발만 살 뿐,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사실 이렇게 분리수거에 목을 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점의 셀프바에는 음식물,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대다수의 나라는 그저 쓰레기통 하나 뿐

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요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강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다. 이미 그들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삶이 녹아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존재한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읽기 전 '침묵의 봄 이래로 가장 탁월한 업적'이라는 책 표지의 문구에 눈이 쏠렸다.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강력한 살충제인 DDT의 유해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새가 모두 죽어 조용한 봄이 올 것이라 주장했다. 책이 발간된 이후 DDT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져갔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발암물질로도 인정되며 DDT는 사장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유해하다고 알려진 DDT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값싸고 강력한 DDT의 사용 금지로 개발도상국들은 보다 값이 비싼 살충제를 사용해야 했고 결국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DDT를 사용할 때보다 증가한 것 이였다. 이처럼 환경과 인간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느 측면에서는 환경파괴로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렇다.

'침묵의 봄'의 양면성처럼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또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저자는 원자력 발전이 기후 및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 저자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또한 도시와 같은 인구집중이 결국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구가 과밀화 되는 만큼 자연에 돌아가는 환경이 늘어난다는 근거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 과밀화로 인해 늘어나는 전염병 위협을 지난 코로나19로 실감했다. 또한 빈부격차, 지역격차 역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 또한 인류에 중요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환경 보호는 결국 인류의 생존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우리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식량난까지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의 생존을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 문제점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침묵의 봄'이 초기에는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선 재평가가 이뤄져 단점도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또 다른 착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점 제시

- 원자력만이 유일한 에너지 해결책일까?

원자력이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원자력만이 유일한 에너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건 하나에 집중된 형태는 초기엔 안정적이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위험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사소해 보일진 몰라도 바나나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바나나는 많은 인공 개량을 통해 가장 맛이 좋은 종만 길러지고 있다. 이는 결국 유전자 다양성을 제외한 형태로 그 유전자에 치명적인 병이 돌연 전멸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원자력 역시 모든 전력을 이에 집중한다면 그로 인해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들의 처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처럼 어떤 경우건 '유일한'이라는 가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원자력만이 유일한 에너지 해결책이라는 말에 반대한다. 옛날에 원자력 에너지가 없었을 시절에도 사용하던 에너지원은 분명 있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발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 원자력 발전소와 님비현상

글쓴이가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성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에너지적인 차원,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을 하며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사람들의 거주 지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지어지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로 인해 기피 시설을 혐오하는 '님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사람들은 언제 방사능에 잠식되어 갈지 공포에 떨며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에게 한 마디 던지고 싶다. 과연 당신의 집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될 것인가?

님비 현상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때 처음 배웠던 이 현상은 쓰레기 매립지 예시가 가장 큰 기억에 남는다. 어디든 매립지를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내 동네, 내 집 근처는 싫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참 아이러니한 관계다. 다 좋은 것만 하고 싫어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것 같은 점은 그 누구도 떠안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동안에도 환경은 점차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3 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 윤주희

[붙임1]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 보고서 1부.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이북, 북시계, 그리고 푸른한리머들의 북클럽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요일) / 장 소 : 각자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2****	이름	윤*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이*희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안**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범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p>책 제목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 마이클 셀러버거</p> <p>*토의 후 연장 활동 진행 - 각자 집, 기숙사 분리수거 하기</p> <p>활동 선정 이유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분리수거다. 하지만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쓰레기를 막 버리기 바쁘다. 씨엘씨의 쓰레기통만 봐도 그렇다. 개개인의 분리수거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몇초가 귀찮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막 버린다. 우리 팀원들은 초심으로 되돌아가 조금의 쓰레기라도 올바르게 버리자는 마음 가짐으로 분리수거 활동을 선정했다.</p> <p>후기 귀찮긴 했지만 여러번 하다보니 분리수거가 당연시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자세를 길러놓으니 앞으로도 계속 분리수거하는 좋은 버릇이 들게 된 것 같아 뿌듯한 활동이었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가만히 냅둘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신기하다고 느껴 이 활동을 통해 작은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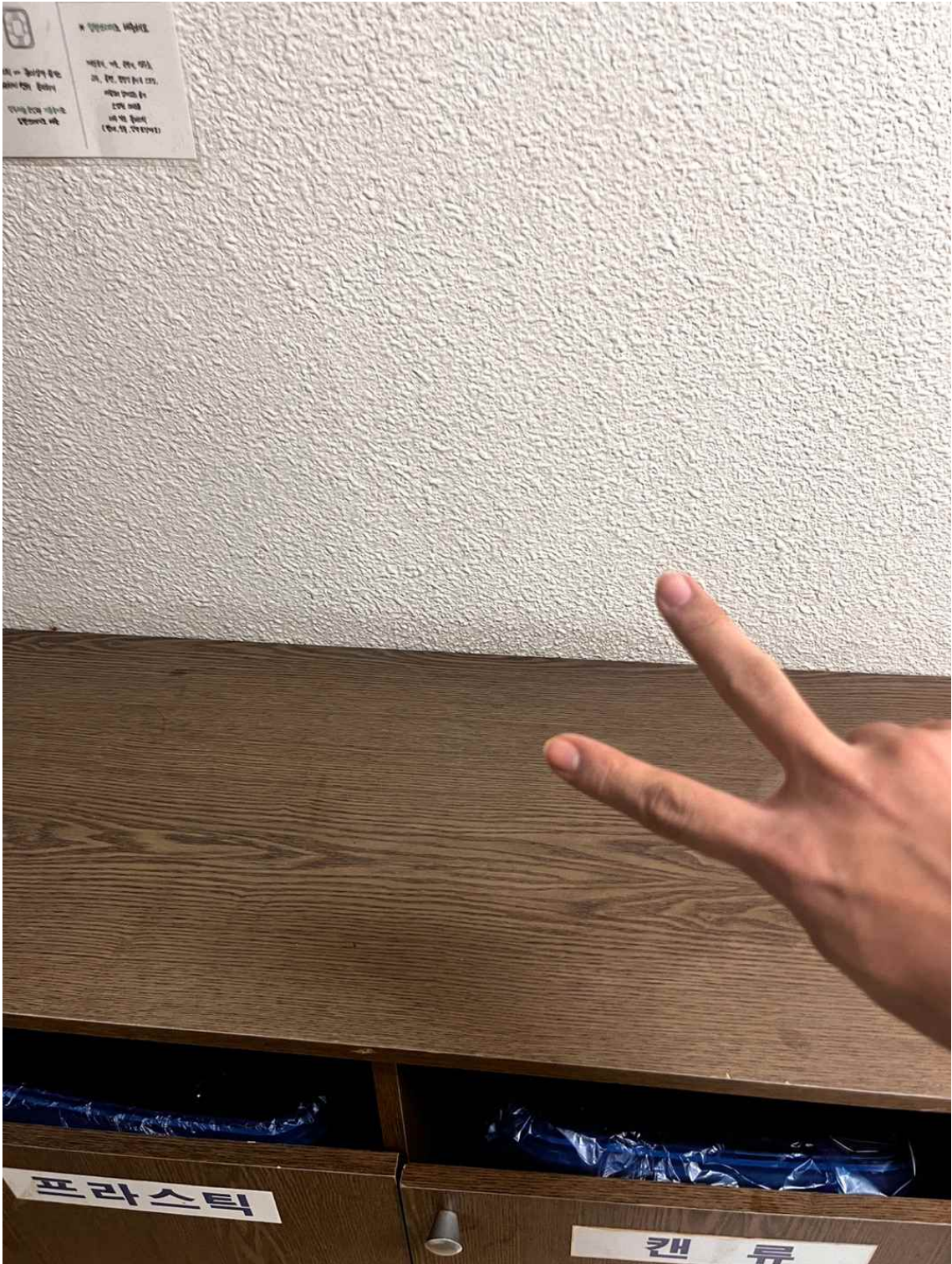
--	--

2023 년 11 월 28 일

참가자대표 : 윤주희







수거되는 품목
수거되지 않는 품목

▶ 재활용 가능한 품목
▶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

플라스틱

캔류







